

유은학원 총동문회관 준공식 열려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고·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언)는 최근 광주시 남구 월산로에 지상 3층 규모 총동문회관 준공식을 열었다. <유은학원 제공>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사랑의 등불 점화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는 최근 담양문화회관에서 전남도 '2015년도 적십자 사랑의 등불 점화식' 행사를 가졌다. <적십자사 제공>

무공수훈자회 광주서구지회 신년 인사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광주서구지회(지회장 이선규)는 최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마치고 올이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공>

보성경찰서 승진예정자 요양원 봉사활동



보성경찰서(서장 박상우) 승진예정자 5명은 최근 보성군 북내면 행복노인 전문요양원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식사도우미와 말벗 봉사활동을 펼쳤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우리말·인문학 부흥 가교 역할 할 것”

백수인 조선대 교수 한국언어학회 신임 회장 선출

회원들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출간 적극 장려

‘취업 위한 학업’에 순수문학·창작 외면 아쉬워

“한국언어학회는 오랜 역사만큼 많은 선배 학자들이 노력해서 오늘까지 발전해왔습니다. 한국언어학회 1300여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을 맡게 돼 부담도 크지만 동료 학자들의 지혜를 모아 학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국어교육과 백수인(59) 교수가 한국언어학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백 교수는 한국언어학회가 최근 전주대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뽑혔다.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한국언어학회는 지난 1963년 설립된 이후 국어학, 한국고전학, 현대문학, 국어교육학 등을 연구하는 국어학자들이 소속된 학술단체다. 설립 초기 국어와 문학, 언어 등을 연구하는 작은 모임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학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참여하는 학술발표대회와 논문집 출간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어학회를 이끌게 된 백 교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국어학자, 문학도로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흥 출신인 그에게 문학도로 접어든 계기를 묻자 잠시 고민하더니 ‘등하굣길’이라고 답했다. 당시 장흥 안양국민학교를 다니던 그는



왕복 8km를 매일 걸어야 했다.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매일 8km를 걷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 그렇지만 당시 등하굣길은 힘들지 않았다고 그는 기억했다. 먼 거리지만 친구와 함께 꽃과 나무를 보며 걷는 게 즐거웠고, 그렇

게 천천히 길을 노닐며 자연을 오롯이 관찰한 덕분에 상상력을 키웠다는 것. 길에서 보고 느낀 경험이 자양분이 돼 문학적인 뿌리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을을 누비며 풍부한 심상을 키운 문학소년은 어느덧 학술단체를 이끄는 학회장이 됐다. 지난 1977년 한국언어학회에 가입한 백 교수는 당시 가입순서에 따라 주어진 회원번호 ‘119’를 회상하며 현재 130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단체를 이끌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그는 회장이란 자리도 정기총회에 참여한 회원들의 추대로 선출된 것처럼 학회를 이끄는 주체는 회원이란 점을 역설했다.

“국어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연구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논문집을 만드는 것은 한글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언어학회 회원은 물론 관련학회 소속 학자들과도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국어학 연구하는 학자지만 교단에서 제자를 키우는 입장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취업을 위한 학업’이 돼버린 요즘, 학생들이 순수문학을 공부하거나 창작활동을 하는 것에는 관심을 잃어버린 채 시험을 위한 암기만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학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문학 위기의 시대, 한국언어학회가 국어학은 물론 인문학 부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노력하겠습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아름다운 기업 만들어 가자”

박삼구 회장, 임원 세미나서 주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올해 경영방침인 ‘자강불식’의 의미를 되새기며 임직원들과 씩씩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박 회장은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전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상반기 임원 전략경영세미나’를 열고, “자강불식은 자신을 강하게 하는 데 힘이 있어

서 안 된다는 의미인 데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옛날 마라톤은 처음에는 살살 뛰다가 나중에 역전하는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처음부터 선두그룹에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사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이날 그룹의 철학인 한 ‘아름

운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계열사별 실천방안을 듣고 “아시아나항공의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용어를 1999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6년에 그룹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아름다운 기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아름다운 기업에 맞는 실적과 이미지를 만들지 못했지만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는 우리 금호아시아나가 독점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기업을 만들어 가자”고 주문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업무보고회

“올해 4731억 투입 삶의 질 향상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올해 총 4731억원을 투입해 농어업 기반 시설 및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부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농어촌 1번지, 희망 전남’을 슬로건으로 창조, 책임, 행복 경영 실천을 위한 경영목표설정과 중점추진전략을 각 부별로 발



표했다. 세부 실천방안과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광 본부장은 “중심지역본부로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용복 전남대 교수

한미약학자연합회장 선임



전남대학교 이용복 약학부 교수가 최근 열린 한미약학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 11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부회장직을 맡은바 있는 이용복 교수는 이따부터 2년 동안 한미약학자연합회를 이끌게 된다.

한미약학자연합회는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중인 한인 약학자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약학 및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창립됐다.

신임 이 회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유한솔·최혜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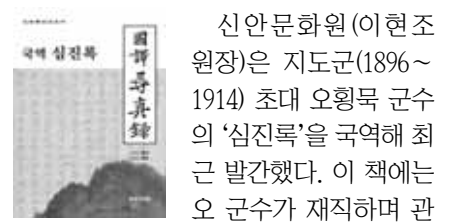
아산복지재단 장학생 선발돼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한솔·최혜선(2년·왼쪽부터)씨가 (재)아산사회복지재단 재능나눔장학생으로 선발돼 1년간 등록금 전액과 봉사활동비를 지원받게 됐다.

유씨는 지역아동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수련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어려운 환경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꾸준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최씨는 지역아동센터 및 호남대 수화동아리, 큰 한 톨 나눔 축제 스태프 활동 등 교내외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2014년 수출임업행 희망씨앗 봉사단 활동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도군 초대군수 ‘심진록’

신안문화원, 국역 발간



신안문화원(이현조 원장)은 지도군(1896~1914) 초대 오형묵 군수의 ‘심진록’을 국역해 최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오 군수가 재직하며 관찰한 지도 지역에 대한

현장 정보와 다양한 인물들의 면모, 섬사람들이 직접 지은 시문 등을 기록했다.

신안문화원은 심진록 발간을 계기로, 이 책에 근거한 ‘오형묵의 길’을 기획하고 홍보해 신안군의 새로운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 코스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신안군 지원을 받아 일영정, 은선대, 대변정, 당촌의 일몰지, 각 마을의 서당터 등을 복원하고, 역사적 의미와 오 군수의 사연을 홍보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로 제공할 계획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故임을택·이정순씨 장남 동률(광주 일보 경제부 기자)군 신홍선·강순애씨 막내 삼미양=24일(토) 오후 1시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4층.

동창회

▲2015년 광주공고 정기총회 및 총동창회장 이·취임식=20일(화) 오후 6시 30분 P&J웨딩홀 062-511-1946.

알림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

육 실시. 062-526-3370.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하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 ~ 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

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종친회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조 062-232-1313.

중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청년 이화월례회=20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여성 이화월례회=22일(목)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모집

▲광주시 동구 산수도서관 2015년 상반기 문화교육사업 서예, 문인화교실=4개월 과정 20일 개강 062-613-7830. ▲살레시안 가족합창단(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 및 그 가족이며, 합창에 관심있는 분이든 누구나 환영(하루 2중 한반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삼무중학교(운전저수지 옆) 010-3404-

3712(단장). ▲광주시 북구 방실피닉스 축구클럽 동호회원=30세이상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삼무중학교(운전저수지 옆) 010-3404-

▲무등 예술종합 평생교육원(국비지원

100%) 수강생=교사를 위한 반주법, 리더쉽과 스피치, 뮤지컬 탭댄스(일반부·자격증반), 음악치료 심리상담사 자격증반, 미술치료 심리상담사 자격증반. 북구 두암2동 무등파크 1차 상가 2층 062-269-6669, 010-3606-0230.

부음

▲서진자씨 별세 안태홍·태규·애리씨 모친상=발인 19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이병준씨 별세 송근·훈·호형·순자·인자·정자·숙자·영자·희자씨 부친상=발인 20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정병환씨 별세 조·순조·화조·성조·승례·승옥씨 부친상=발인 20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김순심씨 별세 홍삼·수형·길삼·순일·복영·유자씨 모친상=발인 20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for a deceased person, including details for 101st, 102nd, 201st, 301st, 401st, and 402nd memorial services.